

보도	2023.7.5.(수) 15:00	배포	2023.7.5.(수)		
담당부서	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	책임자	국 장	황선오	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 장	유석호	(02-3145-7587)
	자산운용감독국 자문·신탁감독팀	책임자	국 장	최강석	(02-3145-6700)
		담당자	팀 장	송현철	(02-3145-6752)

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증권업계 CEO 간담회 개최

I 회의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'23.7.5.(수) 27개 국내외 증권사 CEO 등과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이번 회의는 증권사의 영업관행 관련 최근 현안사항에 대해 증권업계와 소통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

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요

- ☑ 일시/장소 : '23.7.5.(수) 15:00~17:00,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
- ☑ 주요 참석자
 - (금융감독원) 함용일 자본시장·회계 부원장, 자본시장감독국장, 자산운용감독국장
 - (금융투자협회) 서유석 회장, 자율규제본부장, 산업시장본부장
 - (증권업계) 27개 국내외 증권사 대표
 - (연구원)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
 - (학 계) 중앙대 여은정 교수
 - (독립리서치) 2개 독립리서치 대표(기업리서치센터, 밸류파인더)

II 주요 논의내용

- 증권업계의 리서치 관행상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, 특정금전신탁·랩어카운트 등 고객자산 관리실태 및 불법적 영업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당부말씀을 전달하였음

- 특히,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영업관행은 용인될 수 없으며, 이러한 영업관행은 CEO의 관심과 책임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,
-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센티브 체계 등을 재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

1 |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도 제고

올바른 리서치문화 정착을 위한 증권업계의 일치된 문제인식과 자정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

-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매수 일변도 중심의 리서치보고서 발간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음
 - 올해 3월부터 운영중인 「리서치관행 개선 T/F」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증권사가 그간의 관행에 대한 자성없이, 국내 시장환경만 탓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
 - 또한,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리서치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
 -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도 제고는 개별 증권사 차원보다는,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업계 공동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
 - 한편, 금융당국은 리서치부서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애널리스트의 성과평가, 예산배분, 공시방식 개선 및 독립리서치 제도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임

- 리서치보고서가 투자자에게 균형잡힌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자본시장의 중요한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함

< 증권업계 의견 >

-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업계는 이제라도 잘못된 리서치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,
 - 반복되는 일부 애널리스트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크게 공감
 - 다만, 국내시장의 높은 매수포지션 비중, 리서치보고서 무료 제공 등 시장환경이 리서치 관행에 영향을 미친 점도 있어,
-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시장 참여자의 인식개선 및 증권사의 보호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

2 올바른 고객자산 관리·운용

랩·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관행은 「CEO의 관심과 책임의 영역」이라는 것과 감독당국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

-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·랩어카운트 등 고객자산의 불법적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음
 - 더 이상 고객자산 관리·운용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실무자의 일탈이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음

- 특히, 컴플라이언스, 리스크관리, 감사부서 등 어느 부서도 위법행위를 거르지 못하였다면,
- 이는 전사적인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써,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진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음
- 이제라도 증권업계가 자산관리시장의 불건전·불법관행을 확실히 근절하여,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

3 | 최근상황 및 대응방향

금융당국과 증권업계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

- 금융감독원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음
 - 국내 증권업계는 부동산 PF 등 단기성과에 집착하거나 랩·신탁과 같이 관계지향형 영업을 지속하는 등 증권업의 창의성·혁신성과는 거리가 있으며,
 - 증권사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와 애널리스트 및 펀드 매니저의 사익추구 등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
 -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고,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,
 - ‘자본시장에서의 자금중개 및 공급’이라는 증권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

- 아울러,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하여 금융이 직·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였음
- 특히, 금감원은 외부인 사적접촉 관련규정 준수 등 원칙에 입각하여 검사·감독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예정인바, 증권 업계에도 협조를 부탁함

Ⅲ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주요 자본시장 현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

※ [별첨]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·회계 부원장 발언자료 1부